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OCCASIONAL VIRGIN

가제 : 가끔은 순진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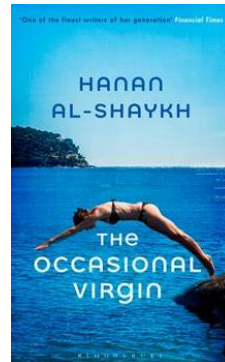
저자 : Hanan al Shaykh

출판사: Bloomsbury Publishing

발행일: 2019년 6월 14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미국, 영국, 그리스 판매 완료

★ “대단하다! 영리하고, 위트 있고,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심오한 현대판 제인 오스틴 코미디” – 소설가 알베르토 망구엘(Alberto Manguel)

★ “작가는 종교와 가족, 대인관계, 정체성과 씨름하는 두 여주인공이 떠올리는 생생한 이미지 속으로 독자를 초대한다” – 「북리스트」

레바논에서 태어나 극도로 보수적인 집안에서 억눌려 살던 두 여성이 운 좋게 족쇄 같은 환경에서 빠져 나와 서구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던 어린 시절과 달리 어디든 갈 수 있고,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생활이 두 사람 앞에 펼쳐지지만, 과거의 기억은 끈질기게 남아 두 사람의 삶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준다. 그러다 자신들과 달리 아랍인이라는 사실이나 독실한 종교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남자를 우연히 알게 되고, 과거에 대한 복수인지 장난인지 모를 묘한 감정이 솟구친 두 여성이 그에게 ‘가르침을 주기로’ 마음 먹으면서 세 사람의 삶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급변하기 시작한다. 마음대로 털어낼 수 없는 과거와 어떻게든 부딪혀 적응해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두 여성의 독특한 사랑과 인생 이야기는 종교가 강철처럼 굳건한 틀이 된 전통 사회에서 여성에게 강요하는 성 역할과 생활 방식을 풍자적으로 그리는 동시에 그것이 남성과 여성에게 끼치는 엄청난 영향을 심오하게 그린다.

후다와 이본은 내전이 일어나자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보내진 아이들이었다. 둘 다 아버지가 절대 권력을 가진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 외에는 사실 공통점이 없었다. 이본의 집안은 기독교를 믿고 후다는 무슬림이라는 것이 일단 가장 큰 차이였다. 특히 후다의 아버지는 일반 신도들의 고민거리를 모두 들어주며 존경 받았고, 후다와 엄마는 이웃의 다른 여성들보다 훨씬 더 억압된 삶을 살아야 했다. 하지만 후다는 고분고분 복종하는 딸이 아니었다. 학교 친구들과 사

이에서 후다는 누구보다 농담도 잘 하고, 다른 사람 흉내도 잘 낼 뿐만 아니라 생각도, 행동도 개방적인 활달한 아이였다. 궁금한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 후다는 금지된 일을 해보고 싶을 때면 설득이 불가능한 부모님의 눈을 요리조리 피해서 몰래 시도하곤 했다. 수영도 그 중 하나였다. 시내와 멀리 떨어진 곳에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실내 수영장이 생기고 반 친구들 대부분이 주말이면 그곳에서 수영도 배우고 물놀이를 하기 시작했지만, 아버지에게 여자가 수영복을 입고 남들 앞에 몸을 드러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이라 후다는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고 몰래 가야 했다. 과감해진 후다는 열여섯 살이 되자 바다까지 나가서 수영을 즐기곤 했는데, 그 사실이 결국 들통나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 여자가 파도에 몸을 맡기는 것은 합법적으로 정해진 남편에게 몸을 허락하는 것과 같다고 신도들에게 이야기해온 아버지가 받은 충격과 분노는 엄청났다.

서른 살을 훌쩍 넘어 각자의 자리에서 제법 성공한 후다와 이본은 이탈리아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는 이런 옛 기억을 불러 일으킨다. 토론토에서 연극 연출가로 명성을 얻고 있는 후다는 대담하고 파격적인 소재의 작품들로 큰 사랑을 받는 자신이 왜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바다만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왜 아직도 아버지의 호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지 곰곰이 생각한다. 이본 역시 런던에서 광고회사 대표로 아무 부족함 없이 살고 있지만 오직 아들만 소중히 여기던 부모님의 차별에 그대로 노출되어 살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오빠만 오를 수 있다고 부모님이 정한 바닷가 높은 바위에 이본이 몰래 올라가서 다이빙을 했다는 이유로 크게 혼이 났던 기억은 평온한 이탈리아 바닷가에서도 가장 높은 바위를 찾아 기어올라가게 만드는 유치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쉬려고 떠난 바닷가에서 불쑥 올라오는 힘든 기억들 때문에 괴로워하며 혼란스러운 휴가를 보낸다.

몇 개월 후, 토론토에서 큰 히트를 친 작품을 런던에서도 무대에 올리기 위해 영국을 찾은 후다는 이본과 재회한다. 그런데 하이드 파크에서 누구나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스피커스 코너’를 지나던 두 사람은 독특한 이슬람 청년의 목소리에 발길을 멈춘다. 백인 우월주의에 찌든 인종차별주의자들과 당당히 맞서 날카로운 주장을 펼치던 히삼이라는 이름의 이 청년은 후다에게 ‘불완전한 무슬림’이라며 일갈하고, 그 오만한 콧대를 제대로 꺾어주리라 마음 먹은 후다와 이본은 복수할 계획을 세운다. 일에서는 성공했지만 제대로 된 사랑은 해본 적 없는 두 여성이 히삼을 자극하기 위해 세운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급기야 후다는 자신에게 폭 빠져버린 히삼의 설득으로 코란을 앞에 두고 그와 혼인 맹세와 기도까지 올린다. 세 사람의 엇갈리는 사랑과 복수를 냉소적이면서도 코믹하게 그린 특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하난 알 셰이흐(Hanan al Shaykh)는 수상 경력이 있는 저널리스트이자 소설가, 극작가로 현대 아랍 문화권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는 작가로 인정 받고 있다. 소설 『ONLY IN LONDON』, 『BEIRUT BLUES』, 회고록 『THE LOCUST AND THE BIRD』, 단편 모음집 『I SWEEP THE SUN OFF ROOFTOPS』 등을 썼다.

제목 : DON'T YOU WANT ME

가제 : 이제 바닥이니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아

저자 : Mhairi McFarlane

출판사: HarperCollins

발행일: 2019년 3월 7일

분량 : 432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이탈리아,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판매 완료

★ 선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의 희망적인 이야기

고등학교 졸업반, 문학 수업 시간에 서로 짝이 된 것을 계기로 풋풋한 사랑을 키워가던 조지아나와 루카스가 있었다. 몇 년을 같은 학교에 다녔지만 친구도 많고 소위 ‘잘 나가는’ 아이들과도 두루 잘 어울리는 조지아나와 있는 듯 없는 듯 거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루카스는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제안으로 짝이 되고 처음 제대로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지아나는 인기를 얻고 주목 받으려고 대놓고 나서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아이들과 어울려려고 애쓰던 터라 처음에는 말 한 번 나눠본 적도 없는 루카스와 그것도 맨 앞줄에 앉게 된 것이 영 실망스러웠지만, 선생님이 내준 팀 숙제를 함께 하느라 그와 <폭풍의 언덕>에 대해 토론을 하고 등장인물, 스토리에 관한 솔직한 생각을 나누면서 루카스에게 뜻밖의 매력을 느꼈다. 아일랜드 억양이 살짝 묻어나는 말투와 정말 진지하게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듣는 모습, 무엇보다 하얀 치아가 모두 보일 만큼 활짝 웃는 루카스의 미소는 보는 사람까지 따라 웃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서로가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어설프지만 아기자기한 연애를 시작한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키워가던 감정은 졸업 기념 파티에서 생긴 오해로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이후 10년 넘게 둘은 서로를 잊고, 잊으려 애쓰며 살아간다.

조지아나는 ‘대학가면 A학점을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은 사람’, ‘나중에 가장 크게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을 뽑아보라는 고등학교 졸업앨범의 투표 결과에 둘 다 1등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지만 서른 살 그녀의 삶은 10여 년 전 친구들의 그 밝은 전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여동생이 그러다 ‘세상에서 가장 늙은 웨이트리스’로 뽑히겠다고 놀리는 것도 우리가 아닌 것이 벌써 몇 년째 식당 종업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조지아나가 스스로 생각하는 진짜 직업은 작가였지만, 책을 낸 것도 아니고 어디다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하는 것도 아니었다. 소설가로 이름을 알릴 때까지 먹고 살아야 하니 잠시만 하자고 시작한 웨이트리스 생활은 이제 조지아나의 일상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한 것도 오산이었는지 더 큰 불행이 한꺼번에 찾아온다. 일반 손님인척 음식점을 찾아온 까다로운 평론가를 서빙하던 중, 그의 무리한 요구에 단단히 화가 나 연쟁을 벌이고 만 것이다. 욕신각신하던 말다툼이 점점 고조되어 큰 싸움으로 번진 후에야 그가 구독자 수가 어마어마한 매거진에 글을 기고하는 음식

평론가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후폭풍이 두려웠던 식당 사장은 그가 보는 앞에서 조지아나를 해고한다. 몇 년을 성실하게 일한 곳에서 어이없이 잘린 후 잔뜩 낙심한 조지아나는 만난 지 6개월째로 접어든 남자친구에게 위로라도 얻으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간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눈 앞에는 절대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이 있었다. 침대 위에 벌거벗고 뒹굴던 남자친구와 낯선 여자의 모습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유명 방송인인 남자친구는 그 순간에도 잔머리를 굴려 ‘우리가 언제 진지하게 사귄 적 있었냐’며 조지아나의 속을 뒤집어놓았다. 몇 시간 사이에 강 펀치를 두 대나 맞고 정신이 탈탈 털린 조지아나는 때마침 친구가 제의한 새 일자리를 그냥 고민하지도 않고 덥석 받아들인다. 그런데 시내에 새로 문을 연 술집 겸 음식점이라는 사실만 알고 찾아간 그 곳에서 뜻밖의 얼굴과 마주친다. 루카스가 바로 그곳의 사장이었다.

조지아나가 10여 년을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온 동안 루카스는 사업가로 대 성공을 거둔 멋진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조지아나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의아했지만 조지아나 역시 둘이 이상하게 헤어졌던 그 시절의 기억은 떠올리고 싶지 않았기에 더 깨닫지 않았고, 두 사람은 철저한 업무 동료가 된다. 루카스는 직원들을 따듯하게 대하는데다, 사업적인 두뇌도 굉장히 뛰어나며 합리적인 유능한 사장이었지만 사생활만큼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었다. 좋은 동료들과 함께 어울려 꽤 오랜 기간 함께 일한 후에야 조지아나는 루카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씩 듣게 된다. 옛날 일이지만 어릴 때 서로에게 끌렸던 그 감정은 순수한 진심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 그 애뒹했던 마음이 다시 피어나는 것도 당연한 결과였다. 자연스레 루카스와 가까워진 조지아나는 그가 사실 처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졸업 파티에서 둘을 갈라놓았던 오해가 그 긴 세월 동안 루카스에게는 지독한 악몽으로 따라다녔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 대체 그 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실 졸업 파티가 있던 날, 비밀 연애 중이던 조지아나와 루카스는 파티 후에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갖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파티 도중 전교에서 인기가 가장 많았던 남학생이 뜻밖에도 조지아나에게 다가와 잠깐 할 얘기가 있다며 다가왔다. 아무 의심 없이 그를 따라간 조지아나는 화장실에 그와 둘이서만 갇힌 후에야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너무 늦었다. 끔찍한 성추행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단단히 오해한 루카스의 냉담한 반응이었다. 서로 똑같이 괴로워하면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온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 삶에 쌓이고 쌓인 오해들을 글로 쓰기 시작한 조지아나는 꿈과 사랑을 모두 얻을지도 모를 돌파구를 마침내 발견한다.

<저자 소개>

바흐리 맥팔레인(Mhairi McFarlane)은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다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큰 성공을 거둔 데뷔작 『You Had Me At Hello』을 비롯해 『Here's Looking at You』, 『It's Not Me, It's You』 등으로 선데이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대열에 올랐다.

제목 : QUEENIE MALONE'S PARADISE HOTEL

가제 : 조각난 기억과 파라다이스 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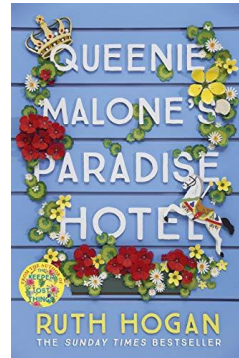
저자 : Ruth Hogan

출판사: Two Roads

발행일: 2019년 5월

분량 : 336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잃어버린 것들의 수집가』를 쓴 영국 베스트셀러 작가의 매력적인 신작 - 영문도 모른 채 행복했던 생활과 작별해야 했던 소녀가 성인이 되어 찾아나선 자신의 과거, 그리고 엄마와 딸의 이야기

햇살을 가득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는 브라이언트 바닷가에는 킬리가 가장 좋아하는 곳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놀러 갈 때마다 톡톡 쏘는 탄산음료를 주는 웬디 이모 집도 거리 두 개만 건너면 되고, 커다란 성당도 가까이에 있지만 킬리가 가장 사랑하는 곳은 역시 퀴니 아줌마가 무대에서 화려한 공연을 펼치는 파라다이스 호텔이었다. 늘 손님들로 북적대던 호텔에서 킬리를 모르는 직원은 없었다. 하나 같이 엉뚱하고 활기차던 직원들과 퀴니 아줌마의 공연을 보러 자주 그곳을 찾던 단골 손님들 모두 킬리를 진심으로 아껴주었고, 킬리의 어린 시절에서 파라다이스 호텔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어쩌면 계속 누릴 수 있었던 행복했던 그 시절은 킬리가 마음의 준비도 채 하기 전에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아무 것도 속 시원히 얘기해주지 않으려던 엄마가 ‘너를 위해서’라는 애매모호한 말만 남긴 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으로 킬리를 보낸 것이다.

이후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는 킬리는 애칭 대신 킬다라는 정식 이름으로 불리는 중년 여성이 되어 아픈 기억이 가득한 브라이언트 해변을 다시 찾는다. 엄마가 홀로 그곳에서 노년기를 보내는 동안 가끔 찾아와서 만나곤 했지만 모녀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은 쉽사리 깨지지 않았고 영 가깝지도, 영 멀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던 엄마가 영원히 세상을 떠나고 이제 킬다가 모든 걸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재산과 물건만 치우면 될 줄 알았던 킬다는 브라이언트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고 끝내 알아내지 못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부모님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 자신이 마무리해야 할 진짜 숙제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직 어린 킬리를 기억하는 마을 토박이들과 새로 만난 따뜻한 사람들의 응원에 힘입어 호기심보다 두려움이 앞선 그 여정을 시작한 킬다는 왜 아빠가 갑자기 집에서 사라졌는지, 왜 자신은 다른 도시로 보내졌어야 했는지 추적하면서 그제야 부모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다. 자신이 기억하는 단편적인 엄마의 모습과 말들 뒤에 숨어 있던 비밀이 하나 둘 드러나고 킬다는 엄마에 대해, 그리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된다.

어린 킬리의 눈에도 아빠와 엄마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아빠는 세 식구가 살던 빅토리아풍 저택 앞뒤로 꽃이며 과일, 채소 키우기를 좋아해서 틈만 나면 킬리를 데리고 나가서 이제 막 열린 라즈베리를 함께 따서 먹기도 하고, 곱게 색이 물들기 시작한 꽃들을 나란히 앉아 구경하기도 했다.

엄마는 그런 지저분한 것,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자전거를 타다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 이웃집 아줌마들은 얼른 달려와서 일으켜 세워주고 상처에 약을 발라 주지만 릴리의 엄마는 칠칠치 못하게 또 넘어졌냐며 호통부터 쳤다. 그래서 릴리는 일곱 살도 채 되기 전에 어지간한 일에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는 법을 체득했다. 반듯하고 깔끔한 옷차림을 유지하는 것, 엄마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착한 아이’가 되는 것 또는 최소한 엄마 눈 앞에서는 그런 아이처럼 보이는 법도 자연스레 배웠다. 흑독하리만치 엄격하고 냉담한 엄마와 살면서 릴리가 배운 그런 마음가짐이 모두 무너진 건,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뒤부터였다. 어느 날부터 아빠는 보이지 않았고 엄마는 ‘일을 하러 갔다’는 대답만 반복하더니, 아빠가 일을 끝내고 맥주 한 잔 마신 뒤 숙소로 돌아가다가 그만 바닷가 낭떠러지에서 발을 헛디뎈 물에 빠졌다는 것이다. 릴리는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지, 왜 아빠 장례식은 열리지 않는지 궁금한 것이 산더미처럼 많았고 엄마가 싫어할 줄 알면서도 꼬치꼬치 캐물었다. 하지만 그 즈음부터 밤마다 위스키를 몇 잔씩 마시던 엄마는 결코 자세히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벌컥 화를 내고 눈물을 쏟아낼 뿐, 그마저도 다음 날 해가 뜨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었다. 뉘든 입을 꼭 다물어버리던 엄마의 이런 방식은 릴리를 저 멀리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로 보낼 때도 마찬가지였다.

마흔 중반이 되어 엄마가 홀로 살던 집에서 유품을 정리하던 릴다는 잠겨 있는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한다. 돌아가신 엄마가 여느 사람들처럼 물건을 소중하게 보관하는 타입이 절대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릴다는 그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 있음을 직감하고, 열쇠를 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일은 어쩌면 억지로 억누르고 있었던 과거의 풀리지 않은 의문을 다시 꺼내서 늦게나마 답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된다. 릴리가 멀리 떠나야 했던 그 시절의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 같이 엄마가 이후 시름에 젖어 폐인처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면서도 딸과 생이별해야 했던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마침내 상자가 열린 후, 릴다는 작은 노트에 연필로 휘갈긴 엄마의 일기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진실을 알게 된다. 릴리를 다른 곳에 보낸 뒤 엄마가 정신병원에 보내져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것, 어린 딸이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격하고 그것이 신을 믿지 않는 아빠와 결혼한 자신의 죄라며 끔찍하게 자책했다는 사실과 함께 아빠는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라 릴리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놀라운 사실도 드러난다. 정말 릴리는 유령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아이였을까? 아빠가 그 때 돌아가신 게 아니라면, 지금 어딘가에 살아 있을까? 릴다는 조각난 자신의 기억 사이를 메우는 버거운 진실들에 놀라고 괴롭지만 평생 이해할 수 없었던 엄마의 냉담함과 뉘든 다 감추려던 행동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다. 릴리와 릴다의 시선이 번갈아 등장하며 이야기가 흡입력 있게 전개되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루스 호건(Ruth Hogan)는 「선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KEEPER OF LOST THING』로 데뷔했다. 엄청난 인기를 얻은 이 소설은 현재까지 30개 언어로 번역됐다. 그 밖에도 『THE WISDOM OF SALLY RED SHOES』, 우리나라에도 출간된 『잃어버린 것들의 수집가(THE KEEPER OF LOST THINGS)』 등을 썼다.

제목 : THE GIRL THEY LEFT BEHIND

가제 : 두고 온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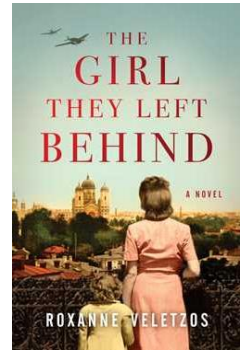
저자 : Roxanne Veletzos

출판사: Atria Books

발행일: 2018년 10월 9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역사소설



★ 이탈리아, 네덜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판매 완료

★ “참신하고 독창적인 데뷔소설. 잘 알려지지 않은 루마니아의 2차 대전 시기 역사를 가족 드라마와 잘 엮었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Alice Network』의 작가 케이트 퀸

★ “철의 장막 뒤에서 이데올로기가 혼란과 잔혹함의 동력이 된 시절,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산산이 부서졌는지 보여준다.” – 『Stolen Beauty』의 저자 로리 리코 알바네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거리 한복판에 끌려 나와 처참한 죽음을 맞아야 했던 사람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잔혹한 대학살 속에서 부모가 어린 자식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선택권이 있을까? 서로를 끔찍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푸른 빛을 띄는 녹색 눈을 가진 예쁜 딸아이를 낳았지만 그 행복을 실컷 누리기도 전에 짓밟혀 죽을 위기에 처한 젊은 유대인 부부는 어느 아파트 현관 앞에 세 살짜리 아이를 두고 돌아서는 길을 택했다. 당연히 피눈물 나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셋이 함께 다니다가는 발각될 것이 뻔하고, 셋 다 그 자리에서 즉살될 것을 알면서 죽음의 길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을 끌고 갈 수는 없었다. 1941년 1월, 공기마저 얼어붙을 듯 추운 밤에 아이는 그렇게 3층짜리 아파트 앞에서 오들오들 떨며 하염없이 엄마를 기다렸다. 용감하게 꼭 참겠다고 엄마와 약속했지만 작고 어린 아이가 오래 버틸 수는 없었다. 결국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린 아이는 친절 한 아파트 관리인에게 발견되어 고아원으로 보내진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직접 낳은 아이처럼 부족한 것 하나 없이 보듬어준 양부모를 만나 고아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아무 걱정 없이 밝은 여성으로 성장한다. 루마니아에서 실제로 벌어진 부쿠레슈티 집단 학살을 소재로 한 이 데뷔 소설에서 작가는 아이를 버릴 수 밖에 없었던 부모와 그 아이를 거둬들인 부모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전쟁으로 모든 것이 피폐해진 험난한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과 사랑의 이야기를 생생한 묘사로 전한다.

1940년 가을부터 2차대전이 끝날 때까지 루마니아에서만 무려 38만 여명의 유대인이 학살됐고 부쿠레슈티도 그 피의 바람을 피하지 못했다. 제발 살아 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젊은 부부가 버리고 떠난 소녀를 자기 아이로 데려간 건 데스피나와 안톤이었다. 그리스에서 사업차 루마니아로 이주한 사업가 아버지를 따라 낯선 나라로 온 데스피나는 종이와 잉크를 파는 상점에서 일하던 안톤과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졌다. 가난하지만 심성이 착하고 이민 온 이후부터 웃음을 잃은 딸에게 다시 환한 미소를 되찾아 준 안톤을 사위로 받아들이는 데스피나의 아버지는 막대한 재산을 부부에게

물려주었고, 안톤은 부쿠레슈티에서 수많은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었다. 서로를 제 몸처럼 사랑하는 두 사람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신은 그 한 가지 소원만은 들어주지 않았다. 네 번의 유산 끝에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데스피나는 전쟁으로 수도 없이 늘어난 고아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여동생을 통해 부모가 버리고 떠난 여자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다. 망설임 끝에 초록색 눈을 가진 아이와 마주한 데스피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그 아이를 자신의 딸로 키우겠다고 그 자리에서 결심한다. 부부는 아이에게 나탈리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고아가 된 충격에 말을 잃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나탈리아는 오직 피아노 건반만 두드리며 자신을 위해 집에 그 큰 악기를 들고 개인 레슨까지 받게 해준 양부모의 정성에 조금씩 트라우마에서 벗어난다. 유산의 고통과 부모 잃은 아픔을 서로에게 기대며 그렇게 세 사람은 끈끈한 한 가족이 된다.

건강하고 밝은 소녀로 자란 나탈리아는 양아버지 안톤이 도와주던 가난하지만 영민한 학생, 빅터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몰래 사랑을 키워간다. 홀로 간직했던 그 마음은 뜻밖의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시기에 다시 피어난다. 안톤은 넉넉한 재산 덕분에 갈수록 악랄해지는 파시즘의 영향으로부터 아내와 딸은 지켜낼 수 있었지만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소비에트가 루마니아를 손아귀에 넣으면서 번성하던 사업은 쇠락의 길로 향했다. 모든 것을 잃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20대 초반이 된 나탈리아도 살림에 보탬이 될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과일 농장에서 포장하는 일을 시작한다. 바로 그곳에서, 공산주의 정권의 고위 관리가 된 빅터와 재회한 것이다. 자신이 힘들 때 성심껏 도와준 안톤과 데스피나의 은혜를 잊지 않은 빅터는 안타까운 마음에 나탈리아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둘 사이에 자연스럽게 애뒀한 감정이 오가기 시작한다. 공산정권의 엄중한 감시와 빅터의 말 하지 못할 비밀 때문에 서로를 향한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지만 빅터와 나탈리아의 사랑은 커져만 갔다. 급기야 빅터는 나탈리아를 자유로운 세상으로 탈출시킬 기회를 만들어낸다. 그것이 둘의 이별을 의미하는 것일지언정 억압과 통제가 없는 곳에서 나탈리아가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빅터의 마음은 뒤늦게 자신이 입양된 아이이고, 친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탈리아가 처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또 하나의 동력이 된다.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주고 사랑해준 양부모와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빅터를 떠나 어쩌면 두 번 다시 없을 탈출의 기회를 잡아야 할까? 이제 와서 친부모를 찾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 때 미국에서 낯선 사람이 보낸 편지가 한 통 도착한다.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발신자는 나탈리아가 일곱 살일 때 극적으로 루마니아를 탈출하여 미국에 도착한 친부모와 만났으며, 버리고 온 딸을 되찾으려는 그 부부의 열정과 가슴 아픈 사연에 감동 받아 지금까지 그 일을 도왔다고 전했다. 이 편지는 친부모와 재회하는 연결고리가 될까?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곳곳하게 버티는 인간의 강인한 정신, 그리고 꺼져가는 희망에 불을 밝히는 인류애의 아름답고 고귀한 힘을 감동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저자 소개>

록산느 벨렛조스(Roxanne Veletzos)는 루마니아에서 태어나 10대 시절에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 그 때부터 동유럽에서의 삶을 단편소설로 쓰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편집자, 콘텐츠 작가, 마케팅 관리자로 일한 바 있다.

NON-FICTION

제목 : THE PEBBLES ON THE BEACH

가제 : 해변 산책자를 위한 자갈 수집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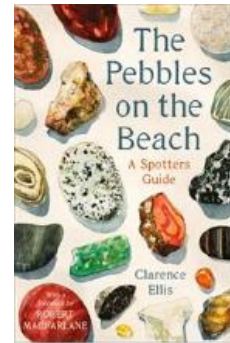
저자 : Clarence Ellis

출판사: Faber & Faber

발행일: 2019년 3월 5일(초판 1954년)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에세이



- * “돌의 언어를 풀어서 내게 보여준 책. 언어가 지닌 생각을 나누고 분류하는 기능과 더불어 언어에 담긴 시를 저자가 사랑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평범한 자갈도 잘게 잘라보고 닦아보면 멋진 무늬가 나타나듯이 언어도 마찬가지다.” – 『The Lost Words』의 저자 로버트 맥팔레인
- * “자갈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출처가 어디인지, 얼마나 매력적인지 같은 자갈의 지질학적 특성과 함께, 영국과 웨일즈 해안 지역 곳곳에 잠깐씩 머물며 어디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준다.” – 「가디언」

아마도 대부분 최소 한 번쯤은 바닷가에서 놀다가 동글동글하고 매끈한 자갈을 발견하고 집에 가져온 경험이 있을 것이다. 드넓은 바다와 탁 트인 해변에서 모래에 숨어 있는 예쁜 자갈은 한낱 돌멩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특별한 매력으로 우리의 관심을 잡아 끈다. 자연을 닮아 부드럽지만 제각기 다른 색깔들, 조금만 자세히 보면 전부 모양이 다른 자갈을 몇 개 주워서 깨끗이 닦아 눈에 잘 띄는 곳에 올려두면, 언제 어디서고 그 돌을 발견한 해변에서 보낸 시간들이 모두 소환되는 마법도 즐길 수 있다. 이 책은 1954년에 초판이 나온 후 베스트셀러 10위권에 꾸준히 머무르며 많은 사랑을 받았었다. 새롭게 출간된 이 책에서 저자는 이 신기한 자갈의 매력을 조금 더 깊이 파헤친다. 자갈에 매혹되어 열심히 모으러 다니다 보면 자연히 이 각각의 돌들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혹은 ‘어떤 종류의 돌일까?’ 같은 근본적인 의문이 들게 마련이지만, 일반인들에게 전문적인 지질학 서적을 뒤져볼 여유는 사실 없다. 따라서 저자는 일반인들을 위해 자갈에 관한 풍성한 정보를 쉽게 풀어서 제공한다.

자갈 수집은 큰 힘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취미다. 심지어 해변에 긴 의자를 놓고 드러누워서도 주변에 있는 돌을 주울 수 있다. 문득 눈에 들어온 자갈을 지나치기 못하고 유심히 보게 되는 이유는 그 돌이 더 거대한 암석에서 시작하여 지금 묻혀 있는 모래처럼 아주 작게 변해가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우리의 생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작되어 마찬가지로 끝을 맞이하듯이, 그리고 자연의 모든 것이 똑같은 순리를 따르듯이 자갈도 묵묵히 자연의 흐름을 따르며 그 중간 즈음에서 우리와 우연히 만난 것이다. 애정을 담아 자갈을 하나하나 모으는 사람들을 위해, 저자는 ‘자갈은 무엇인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함께 고민한다. 이어 자갈이 형성되는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영국에서 자갈을 줍기에 가장 좋은 해변은 어디인지, 이름을 붙이는 등 수집한 돌을 어떻게 분류하고 구분하면 되는지, 그리고 자갈 수집에 필요한 간단한 도구는 무엇인지 실용적인 정보를 제시한다. 이와 함께 저자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규질암, 편암, 오닉스, 마노 등 해변에서 쉽게 발견되는 자갈의 구체적인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과 함께 준보석에 해당되는 돌들의 경우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알려준다. 50년대에 쓰인 책이지만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된 도시 개발로 해안이 줄고 절벽이 약화되어 자갈까지 줄어드는 현상을 우려하고, 준보석이라는 이유로 경제적인 이득에만 치중하여 과도하게 돌을 쓸어 담아가는 행태도 날카롭게 비판한다.

시적인 표현과, 삶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작고 둥근 자갈의 신기한 이야기와, 순수한 과학자의 시선으로 자갈의 특성을 섬세하게 제시한 내용이 잘 결합된 책이다.

<목차>

서문 - 로버트 맥팔레인(Robert Macfarla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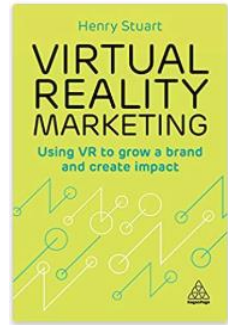
머리말

- I. 조약돌 해변
- II. 자갈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죽음
- III. 자갈의 종류
- IV. 준보석을 찾아 떠나는 흥미로운 여행
- V. 잉글랜드와 웨일즈 해안 지역
- VI. 자갈 찾기, 취미로 어떻게

<저자 소개>

클래런스 엘리스(Clarence Ellis)는 1889년에 웨일스 홀리헤드 섬에서 태어났다. 뱅거 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1차 대전이 발발하자 서부 전선에서 복무했다. 본 저서는 1954년에 초판이 발행되어 「타임」지 베스트셀러 10위권을 꾸준히 유지했다.

제목 : VIRTUAL REALITY MARKETING
가제 : 미리미리 대비하는 가상현실 마케팅
저자 : Henry Stuart
출판사: Kogan Page
발행일: 2018년 10월 3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마케팅



- * “가상현실과 360도 비디오의 세계로 뛰어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출발점이 될 책” – 2018년도 ‘Campaign Tech Awards’ 올해의 신기술 선구자 부문 수상자, 사이먼 고슬링(Simon Gosling)
- * “최전선에서 습득한 통찰과 전문가가 전하는 솔직한 의견, 주목할 만한 사례연구를 알기 쉽게 잘 짜인 구성으로 정리한 정보서” – 업체 ‘VR City’ 공동 창립자 겸 CEO 애슐리 코완(Ashley Cowan)

정보를 글로만 전달하던 시대에는 작은 일러스트 하나만 더해져도 문학작품이나 실용적인 글의 내용이 훨씬 더 쉽게 이해된다고 느꼈을 것이다. 사진 기술이 등장한 후에는 그 역할을 현장감을 그대로 담아낸 사진이 대신했지만 최근 또 다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영상만 봐도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혹은 특정한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가상현실’ 기술이 새로운 주자로 등장했다. 새 집을 구할 때도 이제는 사진 대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집안 곳곳을 촬영한 영상으로 직접 그 집을 둘러보는 것처럼 가상현실 기술은 각종 산업에서 점차 중요한 마케팅 도구로 자리를 잡고 있다.

2013년에 영국에서 가상현실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런던 올림픽과 같은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세계적인 브랜드의 가상현실 마케팅을 지원해온 저자는 도입 초기에 직접 부딪혀서 겪고 배운 현실적인 문제들과 산업별 활용 팁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이 책에서 제시한다.

사진 한 장이 천 마디의 말과 같은 효과가 있다면, 가상현실의 효과는 값으로 따질 수 없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2025년까지 시장 규모가 TV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될 만큼 큰 붐을 얻고 있는 가상현실 마케팅은 이제 막 활기를 띠기 시작한 분야라 유의해야 할 점도 많고 그만큼 잠재력도 엄청나다.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가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 기업의 스토리, 특정 장소를 ‘현실만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제대로 활용할 경우 실제보다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다. 특히 중요한 이점은 제품과 브랜드를 가장 완벽한 버전으로 소비자가 경험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 동시에 소비자가 상품을 각자의 취향에 맞게 사용해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가상현실 기술은 사람의 감정에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므로 상품과 브랜드에 보다 깊이 몰입하고 개인적인 감상이 해당 상품과의 유대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훨씬 높다. 문제는 이 같은 매력적인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가상현실 기술에 접목시킬 수 있는 스토리텔링 언어가 완전히 자리를 잡지 않은 상황이고, 기술 실현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플랫폼이 너무

복잡하거나 까다로워 보여서 선뜻 발을 들이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저자는 가상현실을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고 싶지만 이런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자 가장 흥미진진한 매체가 될 가상현실과 360도 비디오의 상업적인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수동형 가상현실, 소셜 미디어와 결합시킨 가상현실 마케팅을 비롯해 인플루언서(influencer)와 블로거의 역할에 관한 꼼꼼한 분석이 제시되며, 앞으로 가상현실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통찰력 있는 전망도 함께 제공된다.

다양한 사례연구와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내용으로 정확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서다.

<목차>

가상현실 마케팅 소개

- 가상현실이란 무엇인가? / 가상현실의 간략한 역사 / 선구자의 시각에서 (이하 생략)

1. 가상현실 - 왜 활용해야 할까?

- 전략적 이점 / 투자자본수익률(ROI) / 가상현실을 활용 중인 시장 / 결론

2. 산업적인 해석

- 가상현실 산업의 건전성 / 가상현실과 관광 / 가상현실과 공연예술, 스포츠 (이하 생략)

3. 가상현실 마케팅의 유형과 선택 방법

- 가상현실 헤드셋과 플랫폼 / 경량 모바일 헤드셋(구글 카드보드) (이하 생략)

4. 가상현실 제작

- 제작 준비단계 / 비전 / 제작 현실 / 핵심성과지표(KPI) / 창의성 키우기 (이하 생략)

5. 가상현실 카메라

- 3D 카메라 / 고프로(GoPro) 오딧세이 / 이 헤일로(Yi Halo) (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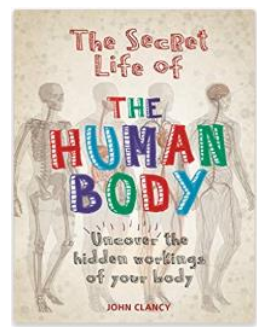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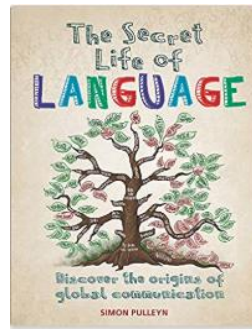
6. 가상현실의 미래

- 미래학자가 전망하는 가상현실 - 로한 실바(Rohan Silva)
- 대량 채택 경로
- 가상현실을 이용한 미래의 마케팅
- 결론

<저자 소개>

헨리 스튜어트(Henry Stuart)는 가상현실 스튜디오 'VISUALISE'의 창립자로 CEO를 맡고 있다. 영국 왕실 결혼식, 런던 올림픽 등 대형 행사와 구글, 이코노미스트, 아우디, BBC, 아디다스 등 다양한 브랜드에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마케팅을 제공해 왔다.

제목 : THE SECRET LIFE OF LANGUAGE /
THE SECRET LIFE OF THE HUMAN BODY
가제 : 신기한 언어 속으로 / 신기한 인체 속으로
저자 : Simon Pulleyn / John Clancy
출판사: Cassell
발행일: 2018년 8월 30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과학



★ 수학, 생물학, 언어학, 화학, 유전학 등 흥미로운 분야의 깊이 있는 지식을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성 넘치는 그림과 도표와 함께 설명한 <The Secret Life> 시리즈 중 두 권

1. THE SECRET LIFE OF LANGUAGE

같은 지구에 살면서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저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시대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키며 주요한 탐구 주제로 다루어졌다. 맨 처음 지구에 등장한 인류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의사소통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 언어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떤 경로로 발전하고 세분되었을까? 학창시절부터 언어의 매력에 빠져 계속 언어를 연구하고 분석해온 저자는 독특한 일러스트가 가득한 이 책에서 이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알찬 정보를 제공한다. 전 세계에서 언어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고대 원형 언어에서 현대와 같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탄생하기까지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정보와 함께 사회적, 문화적인 영향이 언어의 형성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설명한다. 특히 문자 언어의 기원을 둘러싼 놀라운 배경과 암호 해독의 어려움, ‘왕좌의 게임’에 사용된 가상언어 도스라키(Dothraki)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언어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도 알아본다. 문헌학, 형태학, 음운 체계 등 이름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는 주제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

전 세계 언어의 등장과 발전에 관한 신기한 이야기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 담겨 있는 놀라운 사실들을 배울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이다.

2. THE SECRET LIFE OF THE HUMAN BODY

우리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먹은 음식을 알아서 소화시키고 어지간한 병이나 상처는 알아서 원래대로 되돌려놓는 우리 몸의 기능은 알면 알수록 놀랍기만 하다. 다양한 계기로 신기하고 멋진 인체의 기능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건강도 인체도 그저 당연하게 여기고 그 엄청난 능력을 전혀 모르는 채로 사는 사람들도 많다. 35년 이상 인체 건강과 생물학적인 특징을 연구하고 가르쳐온 저자는 간결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기능에서 비롯된 결과인지 알려준다. 장기로도 불리는 인체 각 기관과 조직, 신경, 섬유, 혈액 등 인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원자를 모두 합하면 7×10^{27} 에 달한다는 점, 우리가 알고 있는 오감 외에도 인체에는 열다섯 가지의 ‘다른 감각’이 존재한다는 점, 눈으로 25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은하를 볼 수 있다는 점과 같은 신기한 사실과 더불어 인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정해진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같은 기본적인 지식도 색다른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흥미롭게 제시된다.

무엇보다 인체의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각 구성요소의 연계성과 상호의존성이 조화를 이뤄 체계적인 질서에 따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다.

<목차>

1.THE SECRET LIFE OF LANGUAGE

담화의 해부

-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 담화에 담긴 힘의 발전 과정

언어는 무엇으로 구성될까?

어족

문자

변화하는 언어

다음은?

2.THE SECRET LIFE OF THE HUMAN BODY

우리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완벽한 세상, 심혈관계

숨겨진 세상, 호르몬과 효소

호흡, 그리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근육

근·골격계의 비밀

소화관과 그 내부

면역계의 전투장

감각

피부, 머리카락, 손톱발톱

문제가 생기면

미래의 건강

기술과 미래의 의학

<저자 소개>

1. 사이먼 풀린(Simon Pulley)은 옥스포드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공부하면서 특히 인도-유럽어 비교언어학과 일반언어학을 세부 전공했다. 동 대학에서 10여 년간 교전을 가르쳤다.

2. 존 클랜시(John Clancy)는 이스트앵글리아 대학교 의학·건강과학 선임 교수로 35년 이상 인체를 연구해 왔다. 총 일곱 권의 저서를 발표하여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었으며 두 권은 TV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됐다.

제목: THE COURSE OF HISTORY

가제: 역사는 식탁에서 만들어졌다: 역사의 방향을 바꾼 열 가지 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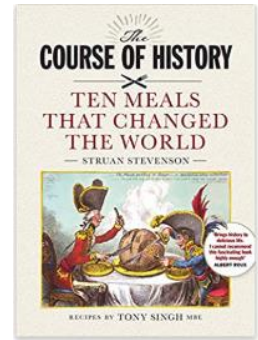
저자: Struan Stevenson

출판사: Birlinn Ltd

발행일: 2017년 10월 24일

분량: 304 페이지

장르: 역사



★ “역사에 관심이 많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꼭 맞는 독특하고 흡입력 있는 책” - 「Scottish Field」

올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에 나눈 대화 내용과 의제와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것 중 하나는 ‘만찬 메뉴’였다. 어디에서 생산된 어떤 재료가 어떻게 조리되었는지, 접시에 어떻게 담겼고 특정한 디저트나 색깔이 들어간 의미가 세세하게 언론에 공개될 정도로 식탁에 올라온 음식에도 관심이 쏟아졌다. 정치외교적인 주요 행사에서 반드시 함께 식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평생을 정치인으로 살아온 저자는 전 세계 왕가 사람들과 대통령, 외교 인사, 산업계 리더들과 무수한 식사를 함께하면서 음식이 중요한 결정과 협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의 방향을 크게 바꾼 열 가지 식사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다.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로 망명한 제임스 2세와 그 자손의 왕위 부활을 꾀한 세력인 자코바이트와 영국군이 컬로든 습지에서 전투를 벌이기 전날, 영국군이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풍성하게 차려진 저녁을 먹어 두고 와인을 쉴 새 없이 들이키지 않았다면 찰스 에드워드 스튜어트 왕자는 좀 더 나은 판단력을 유지하고 자코바이트를 물리칠 수 있었을까?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과 아내 소피가 사라예보를 방문했을 때 유럽 최고급 와인이 곁들여 아홉 가지 코스로 구성된 화려한 연회를 즐기는 대신 조용하고 소박한 식사로 만족했다면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암살 사건을 피할 수 있었을까? 평소에도 잔치하기로 유명했던 오스트리아의 쿠르트 폰 슈슈니크 수상이 1938년 2월, 히틀러의 점심 초대를 거절했다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합병을 막을 수 있었을까? 저자는 음식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강력한 기능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만큼 그 가능성을 결코 경시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속에 함유된 무수한 화학물질이 우리의 뇌 기능을 좌우하고 연이어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호르몬 반응이 촉발되어 생각의 방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다. 저자는 세계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열 가지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먹은 음식이 무엇이었고 이것이 뒤이어 벌어진 결과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었는지 상세히 분석해본다. 영국에서 가장 솜씨 좋은 요리사로 꼽히는 토니 싱(Tony Singh)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역사적인 요리의 레시피도 함께 제공되어 독자들도 그 중대한 메뉴의 맛을 느껴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이 책에 소개된 각 사건이 벌어진 시기나 장소, 관련 당사자는 모두 다르지만 모두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저자가 세밀한 문헌 조사를 통해 당시 식탁에 오른 메뉴를 하나하나 추적하고 정보가 부족한 경우 최대한 가능성이 높은 메뉴를 추정하여 열 가지 사건마다 독자들이 실제로 그 자리 함께 앉아 있는 것처럼 생생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미국 독립 혁명의 씨앗이 된 젊은 조지 워싱턴의 저녁식사, 워싱턴 DC가 새로 탄생한 미합중국의 수도로 결정된 토머스 제퍼슨의 뉴욕 디너 파티, 유럽의 국경이 다시 그려진 빈 회의, 중국이 기나긴 고립 정책을 끝내고 개방을 결정한 리처드 닉슨과 마오쩌둥의 만남 등 세계사의 중대한 순간에 함께 식탁에 둘러앉은 역사적 인물들의 개인적인 성향과 특징, 식탁에서 다루어진 쟁점이 그 자리에 제공된 음식과 어떻게 결합되어 최종적인 결정 혹은 사건의 결말에 도달했는지 음식을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한 참신하고 재미 있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1. 켈로든 전투 전날의 찰스 에드워드 스튜어트
2. 미국 혁명의 씨앗을 뿌리다
3. 워싱턴 D. C는 어쩌다 미국의 수도가 되었을까
4. 100년의 평화를 만들어낸 빈 회의
5.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사라예보에서 먹은 저녁식사
6. 스코틀랜드의 한 연회장에서 석유 정치가 탄생한 배경
7. 오스트리아 합병
8. 테헤란에서 열린 처칠의 생일 연회
9. 중국에 간 닉슨
10.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조약과 저녁 만찬

<저자 소개>

스트루언 스티븐슨(Struan Stevenson)은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유럽의회 의원으로 세 번의 임기를 마쳤다. 수상 경력이 있는 저술가이자 방송인이기도 하다.

제목 : CREATIVE COURAGE

가제 : 창의적인 용기: 안정과 혁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7가지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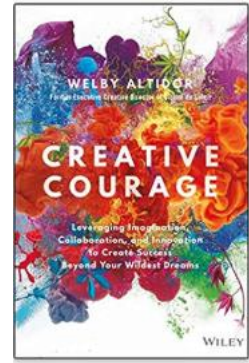
저자 : Welby Altidor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7년 9월 18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 “저자는 업무 환경에 따라 개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능력과 재능을 공유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미 밝혀낸 사람이다. 이 책에서는 인간의 잠재력을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고집어낼 수 있는 틀을 알려준다.” – Barry-Wehmiller Companies CEO, 『Everybody Matters』의 저자, 밥 탬먼
- * “우리가 가진 창의력을 모두 강력하게, 생산적으로 자극하는, 주목할 만한 책” – MIT 경영대학원 리더십 센터 대표 할 그레거센(Hal Gregersen)

사업과 조직 전체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이 오면, 오랜 시간 지속된 과거와 변화를 맞이한 현재가 충돌하고 갈등한다. 이는 과연 이 변화를 무사히 해낼 수 있는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되묻고 소중한 과거의 자산을 모두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감과 의구심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답답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절박하게 찾게 되는 바로 이 시점이 그 어느 때보다 혁신적인 변화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20년간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업체로 알려진 ‘태양의 서커스’ 그룹에서 총감독으로 일한 저자는, 극도의 긴장감이 폭발할 것처럼 고조되고 과거와 현재 사이에 깊은 균열이 발생하는 그 지점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키워주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이야기한다. 지난 날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고, 새로운 혁신과 모든 것을 새로 바꿔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면 조직과 사업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반대로 안정을 택한다면 창의력과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조직문화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자는 전 세계 무수한 회사, 팀, 단체, 정당들이 고민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반드시 안정과 창의력 중 하나만 택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다.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목표, 즉 생산성 높고 회복력과 안정성도 잃지 않으면서 성장과 변화, 혁신을 거부하지 않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며 장기적인 성장과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조직이 되어야 한다 것이다. 저자는 ‘창의적인 용기’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이루는 열쇠이며, 총 일곱 가지 단계를 거쳐 창의적 용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밖으로 나가려면 푸근하고 안락한 방에서 나가는 문을 열어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는데 지붕이 막는다면 지붕부터 부숴야 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창의적인 용기는 이처럼 안전하고 편안

한 곳에서 자진해서 벗어나는 것, 일상이 된 오랜 습관과 전통을 한쪽에 치워두고 ‘지금 이대로만 하면 된다’는 시각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 것도 예측할 수 없지만 새로운 공간, 새로운 환경에 용기를 내어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내면에 잠들어있던 재능과 상상력이 피어나고 그 불안한 과도기에서 벗어나려는 절실한 노력이 혁신을 만든다. 저자는 창의적인 용기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용적인 전략일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마음을 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익숙한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업무도 생활도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상대를 배려하는 것, 안전을 무시하지 않는 것, 신뢰를 쌓는 것이 기본적인 가치임을 인지하고 이를 토대로 혁신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건설적인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여정을 용기 있게 시작하도록 이끌어주는 방법이 각 장에 상세히 제시된다.

변화와 혼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버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일깨워준다.

<목차>

서문 / 머리말

- 1장. 업무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문제: 상상력 전쟁, 창의적 용기를 잃는 과정
 - 2장. 관심이 먼저다: 업무에 무관심한 상태가 지속될 때, 존중이 첫 단계는 아니다
 - 3장. 안전 보장: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신뢰도 없다
 - 4장. 신뢰 키우기: 사일로의 자연스러운 상태
 - 5장. 위험을 가지고 노는 법: 감당해야 할 것이 많을수록 안전을 택한다
 - 6장. 꿈: 아직은 꿈꾸지 마라
 - 7장. 돌파구 찾기: 주목 받지 못하는 인간의 감정, 그리고 미래의 경계
 - 8장. 성장하라: 로고가 전부는 아니라면?
 - 9장. 춤이 시작된다: 너무 늦은 때는 언제일까?
- 결론: 50 퍼센트는 더 할 수 있다

<저자 소개>

웰비 얼티도어(Welby Altidor)는 ‘태양의 서커스’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했다. 마이클 잭슨의 영상 ‘ONE’을 제작했으며 태양의 서커스 그룹 산하 연구소 C:LAB을 설립했다.

제목 : THE SCHOOL DISCIPLINE FIX
가제 : 학교 규칙, 뜯어 고쳐라
저자 : J. Stuart Ablon, Alisha R. Pollastri
출판사: W. W. Norton & Company
발행일: 2018년 8월 21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교육



- * “모든 학생을 연민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틀과 언어, 도구를 알려주는 책. 새로운 마음가짐과 간단한 평가 절차를 통해 가르치기 힘든 일부 학생들에 관한 전통적인 시각을 뒤집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 행동교정/자폐아동 교사, 컨설턴트 트리샤 베일리 소베(Tricia Bailey Sauv )
- * “교사, 상담교사, 행정직원들까지,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학생 전체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워싱턴 하이츠 초등학교 교장, 레베카 맥머디(Rebecca McMurdie)

유독 말을 안 듣고 대부분 어느 정도는 따르는 규칙이나 행동 방식도 잘 따르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인 일탈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공동 문제해결법(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CPS)’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실시된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확인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수한 아동,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심리학자인 두 저자는 임상 의사들을 통해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가정보다 학교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보다 교육 환경에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교사, 교직원들의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교육자들이 직접 CPS를 실천할 때 교정 효과가 훨씬 우수하다는 점을 확인한 두 저자는 전통적인 학교 규율대신 전 세계 모든 학교가 채택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이 책에서 제시한다.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 하는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동기를 유발하려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은 이미 무익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두 저자는 신경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 CPS를 통해 잘 해보려는 ‘의지’가 아니라 어떻게 잘 해야 하는지 ‘기술’이 부족해서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무수한 사례를 교육자가 바로잡을 수 있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먼저 문제 행동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전통적인 시각이 부정확하고 이로 인해 무익한 시도로 이어지는 현 상황을 진단한다. 더불어 신경과학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교육자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2부에서는 공동 문제해결법(CPS)의 세부적인 단계를 하나하나 설명한다. ‘행동 중재 계획’을 기본

틀로 삼아 어떤 학생이든 잘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부족한 기술을 키울 수 있도록 교사가 도와주고 학생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문제 행동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해소하는 방법과 개별적인 지도가 아닌 여러 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룹 지도에 CPS를 적용하는 방법도 함께 제시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학교 전체나 교육시스템에 포괄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 CPS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두 저자가 실제로 각급 학교에서 실행한 사례들과 함께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방해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학부모, 다른 교육자와 함께 그 목표를 이루는 방안을 제시한다.

교사, 상담가, 코치, 교내 행정 담당자 모두가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 행동을 인지하고 불필요한 갈등 없이 학생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키워줄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이 담긴 교육서다.

<목차>

머리말

1부. 도전적인 행동, 다시 생각하기

1. 전통적인 학교 규율이 무너진 이유
2. 학생들은 누구나 잘 하고 싶어한다: 무엇이 방해요소로 작용할까?
3. 문제 행동은 예측할 수 있고 따라서 예방할 수 있다
4. 학생들의 생각에 관한 평가: 의지가 아닌 기술 부족
5. 작전 계획 수립: 딱 세 가지 방법이 있다

2부. '공동 문제해결법'

6. 플랜 B: 공감하고, 공유하고, 협력하고
7. 기술을 가르치고 동시에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
8. 플랜 B는 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9. 연습, 연습, 연습: 플랜 B의 계획과 문제해결
10. 멈춰버린 학생들: 직선적 기술 훈련
11. 그룹 플랜 B: 여러 학생들과 함께 문제 해결하기

3부. 학교규율의 변화에 관한 평가와 유지 (12-15장)

<저자 소개>

J. 스튜어트 애블론(J. Stuart Ablon)은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심리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앨리샤 R. 폴라스트리(Alisha R. Pollastri)는 하버드 의과대학 소속 심리학자다.